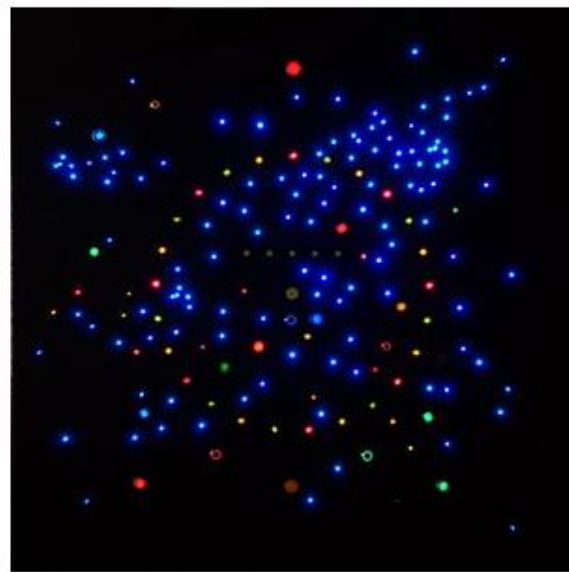


## [아침의 갤러리] 미지의 공간

설치작가 윤애영 씨의 '미지의 공간'이다. 야간 비행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갖가지 색깔 크기 모양의 빛이 반짝인다. 프랑스에 살고 있는 작가는 서울과 파리를 오가는 밤 하늘에서 영감을 받았다. "빛 하나하나에 모든 세계가 있고 그것이 모이면 또 다른 세계를 형성하지요.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. 오늘날 현대 문명 하에서는 그 빛이라는 것도 결국은 스위치에 의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, 없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."



작품에는 수십 개의 스위치와 버튼이 붙어 있다. 누르면 화면 속 LED 빛 몇 개가 꺼지거나 켜진다. 작동하는 스위치도 있고 아닌

것도 있다. 그저 감상만 하는 관객도 있고 호기심에 스위치를 눌러보는 사람도 있다. 작가는 "호기심과 탐구심의 유무에 따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갈리지만 그냥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"고 말했다. 윤애영 김성수 이광기 장성은 최수환 홍승혜 등 한국의 젊은 작가 6명과 일본의 중견 설치작가 유리치 히가시오나의 작품이 'LIGHT ON'이라는 주제로 전시되고 있다. 오는 28일까지, 부산 해운대구 중동 조현화랑, (051) 747-8853.

강필희 기자 flute@kookje.co.kr

입력: 2010.02.15 20:06

© 국제신문(www.kookje.co.kr)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